

지자체·기업·주민이 불어넣은 예술혼...섬 전체가 갤러리

문화로 키우는 지역 경제

4 나오시마(下)

베네세 홀딩스 그룹, 1987년 '예술섬 프로젝트'

안도 다다오 설계 지중미술관, 자연과 조화

예술가·주민 협업 '세토 예술제' 올 100만 방문

나오시마 = 글·사진 김경인 기자

'예술의 낙원' '예술의 섬' '현대 미술의 메카' '아트 투어의 성지' '그림 같은 섬'...

오늘날 나오시마가 탄생하기까지는 지자체의 노력 못지 않게 일본 교육기업 베네세 홀딩스 그룹의 역할이 컸다. 그룹의 후쿠타케 소이치로(Fukutake Soichiro) 대표이사 회장은 1987년 '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해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섬인 나오시마를 자연과 예술·건축, 사람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 미술관과 숙박시설 등이 어우러진 베네세 하우스를 만들어 나오시마의 성장 기반을 만들었고, 이에(家)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들과 현대미술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힘을 쏟았다. 지난 2004년 개관한 지중미술관(地中美術館·Chichu Art Museum)은 '나오시마=지중미술관'이라고 불리는 베네세 홀딩스의 대표작이다. 아직도 베네세 홀딩스는 이우환미술관(2010) 등 꾸준한 투자를 통해 나오시마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있는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살려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 중이다.

◇자연 위해 땅속에 묻은 지중미술관=지중미술관은 수련 연못을 보는 것부터 시작했다. 노란 수련 꽃이 피어나 연못 주위로 는 이를 모를 야생화들이 빼곡했고, 그 위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는 버드나무가 연못에 비치면서 만들어내는 장상이 하나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다.

작은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자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건축 세계를 잘 보여주는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다. 콘크리트 벽면에 붙은 담쟁이덩굴이 인상적이었다. 노출 콘크리트 벽면을 따라 들어서자 긴 통로 곳곳에 자연관이 스며들었다. 미술관 천장 곳곳은 여느 미술관과 달리 뿔뿔이 고개를 들자 파란 하늘과 구름이 한 편의 영상 작품처럼 지나갔다. 미술관 통로 곳곳을 오가는 내내 시시각각 변하는 빛이 만들어내는 선들이 장관이었다.

미술관을 설계한 안도 다다오는 베네세 하우스, 이우환 미술관, 이에 프로젝트 등 나오시마 예술섬 프로젝트를 함께 해온 건축가다. 그는 '있는 것을 살려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목표로 나오시마를 가꾸고 있는 베네세 그룹과 생각을 같이했다.

지중미술관이라는 이름처럼 안도 다다오는 거대한 미술관을 땅속에 파묻었다. 자연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철학 아래 옆으로 펼쳐지는 해안 절경과 미술관 위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관람객들은 땅속에 있다는 느낌을 전혀 느낄 수 없다. 빛과 뿔뿔이 있는 천장으로 인해 내외부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간과 계절에 따라 미술관 분위기가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지중미술관은 자연경관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후쿠다케재단 제공〉

체가 전혀 달라진다.

지중미술관은 작가 3명의 작품 9점만을 전시한다. 아니 9점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클로드 모네(Claude Monet)의 수련 시리즈, '빛의 마술사' 제임스 터렐(James Turrell)의 작품, '대지예술가' 월터 드 마리아(Walter De Maria)의 작품들은 안도 다다오의 미술관과 일체 된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예술섬의 새로운 도약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즉 세토우치 트리엔날레는 일본 내해인 세토내해 섬들과 바다의 매력을 예술과 조화시켜 지역활성화를 꿈꾸기 위해 지난 2010년 만들어졌다. 나오시마 등 세토내해 7개의 섬과 도시들을 현대예술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나오시마의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가가와현, 나오시마 그리고 베네세 그룹의 합작품이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는 3년에 한번 봄·여름·가을에 걸쳐 기간을 정해 100여일간 열린다. 나오시마를 비롯해 각 섬 별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과 공공미술품, 다양한 이벤트 등이 계속되면서 외지인들을 불러들이고 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술가들이 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꾸민다는 것이다. 이 기간 세토내해 섬들로 날아간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고 소통한다. 예술가들은 '이에 프로젝트'처럼 오래되고 버려진 것들에 예술을 얹고,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공연을 준비한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오래된 명제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어려운 예술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세토우치 국제예술제를 즐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세토내해 섬들은 북적이고 있다. 지난 2010년 60만여명에 달했던 방문객들은 올해 봄과 여름 시즌에만 모두 90여만명이 찾았다.

기타가와 프람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총괄 감독은 "경제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오시마 등 섬에 살고 있는 고령의 노인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역과 장르, 세대가 다른 여러 사람과 하나의 프로그램을



쿠사마 야요이 작 '노란 호박'



지중미술관 입구에 만들어진 수련 연못.

완성해가는 즐거움이 우리 행사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말했다. /kki@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후쿠다케재단 겐지로 가네시로 부대표

"주민 소통하며 지역과 융화돼야 성공 작품 통해 자연을 보는 곳이 나오시마"

"현대미술을 지역에 가져온다고 해서 지역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 사람들과의 삶 등과 잘 융합을 시켜야 합니다."



베네세 홀딩스 그룹에서 나오시마 예술섬 프로젝트를 위해 만든 후쿠다케재단 겐지로 가네시로 부대표는 주민, 환경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겐지로 가네시로 부대표는 "세토내해 국제예술제를 제외한 나오시마에서 진행 중인 예술섬 프로젝트 대부분은 베네세 그룹이 주축이 돼 추진중"이라며 "모든 프로젝트는 주민들의 서포터를 받아 진행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무조건적인 투자보다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하지 말고, 주민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더 소중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베네세 그룹은 단순히 현대 미술 작품과 조형물을 나오시마로 들여오지 않고, 직접 작가들을 나오시마로 초대해 나오시마에 어울리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의미 없는 오브제들의 나열이 아니라 나오시마에 가장 어울리면서 주민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작품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는 "자연 속에서 예술 작품을 통해 자연을 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오시마"라며 "베네세 그룹은 아직도 나오시마에 투자중"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침술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물안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종합생이생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amja Half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Half ₩10,800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Half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오시는 길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